시 세 동 향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기, 택사 등이 약간의 상승기류를 탈 것으로 예상되나, 불황으로 찌푸린 한약업계의 기상은 좀처럼 맑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 귀 지난해 여름 가뭄피해로 생산량이 줄었던 당귀는 중간상인들의 매점매석으로 한동안 가격이 치솟았었다. 당시 신당귀 도매시세는 6백g 기준 1만2천5백원.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창고에 쌓여있던 물량이 터져 나와 가격이 다소 내린 현재 거래액은 신당귀 7천~8천원. 막당귀 5천5백원 선. 물량은 충분한 상태이며 당귀 시세도 더이상 오르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갈 근 6백g 당 도매시세는 지난달 1천5백~1천6백원 선에서 더 떨어진 1천원 선. 2천원 정도는 돼야 농민들 적정시세이나 수입과의 가격차이가 많아 재배산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수입갈근은 6백g 당 5백원에도 못미치는 3백원 선.

천 궁 태백산 줄기 남쪽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토천궁의 근당 도매시세는 1만1천~1만1천5백원. 울릉도가 산지인 일천궁은 7천8백원 선이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물량은 조금 부족할 듯.

작 약 과잉재배로 생산량이 남아 도는 작약은 현재 6백g 당 도매시세로 2천5백~2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당분간 별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택 사 전라남도 여수와 경상북도 상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택사는 지난해 가뭄으로 물량이 다소 부족해 약간의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도매시세는 6백g당 3천2백원 선.

백복령 자연산으로 국내산은 거의 나오지 않아 물량 부족하며, 대신 수입산이 많다. 국내산 복령은 6백g 당 도매시세로 8천원 선이며 수입은 1천2백원에 거래되고 있다.

남 성 주로 신경통 약재로 많이 쓰이는 남성은 습지대에서 자생되는 품목으로 물량이 부족해 수입산이 많이 들어 오고 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국산 남성(야생종)은 도매시세로 6백g당 1만원 선까지 거래되고 있다.

독 활 수입이 들어오지 않지만 국내생산량이 워낙 많아서 6백g 기준 도매시세가 1천6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원래 울릉도에서 자생되던 독활은 현재 전라도와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뿌리는 약재로 잎은 나물로 많이 소비되며 땅두릅이라 하여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

백 출 국내 생산량이 거의 부족한 품목으로 수입산이 많다. 국산 백출 도매시세는 6백g 기준 7천~7천5백원 선(절단). 수입 백출은 거의 반 가격인 3천5백원 선이다.

반 하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품목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국산 반하는 600g 당 도매시세로 8천원 정도. 수입 반하는 4천~4천8백원 선.

백 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백지 도매시세는 6백g 당 1천5백~1천8백원. 당년생인데다 생산량도 많아 근당 3천원에 거래되던 지난달에 비해 가격은 더 떨어진 상태에서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듯.

산 약 수입이 많이 들어와 가격이 떨어진 상태. 순수 야생은 근당 3만원 선이지만 좀처럼 귀하다. 재배산은 6백g 도매시세가 6천~6천5백원 선.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6천원 이하로는 더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 활 강원도 고냉지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는 강활은 생산량도 그리 많지 않은데다 수입산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큰 가격변동 없이 적정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도매시세로 6백g 기준 6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백하수오 현재 1만5천~2만원 까지 거래되는 자연산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 재배되고 있는 백하수오는 굵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데 엄지손가락만한 것은 6백g 당 1만4천~1만5천원까지 가며 담배의 절반 굵기만 한것은 7천~8천원에 거래된다. 수입은 5천~6천원 선.

황 기 1년근 황기는 충분하지만 지난해 가뭄 영향으로 3년근 이상은 물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현재 6백g당 도매시세는 7천~8천원, 3년근은 최상품이 4만5천~4만7천원 선이며 6년근은 좀처럼 귀한데 최하 5만원 선이다. 여름철 식은땀 나는데 주로 이용되는 황기는 앞으로 7~8월 경에 그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 이와함께 황기 시세도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다.

구기자 수입산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시세는 당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할듯. 수입구기자가 6백g당 3천5백원인데 비해 국산 구기자 도매시세는 8~9천원 선. 지난해 풍작을 거두었던 구기자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돌아 시세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고로쇠나무 등

수액의 천연음료화 본격 추진

저온살균 진공캔 포장, 장기보관가능

수액을 천연음료 상품화하는 연구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 남부임업시험장(진주)에 따르면 수액의 천연 음료화를 위해 수액채취수 종 채취방법 성분 및 효능을 규명하고 장기저장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액채취가 가능한 수종은 자작나무, 거제수나무, 박달나무, 사스레나무, 고로쇠나무, 당단풍나무로 수액엔 마그네슘 칼슘등 이온화된 미네랄성분이 다량 함유돼 진위 이뇨 체력증진에 효능이 뛰어나며 위장병 신경통 고혈압 여성산후증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수액내 당성분이 함유돼 쉽게 부패하는 특성을 지녔으나 수액채취 후 여과 저온살균해 진공캔 및 병에 포장하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시제품을 제조해 남·여 5백1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5%가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흉고지름 10cm 이하의 나무에선 수액을 채취할 수 없고 본당 연 1회 채취하되 천공설치는 전년도 설치부위 반대쪽에 해야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돼 이에따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하동군은 수액음료를 상품화위해 특화사업으로 지정 임업연구원 남부임업시험장의 기술지원하에 생산공장설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메모

황기죽

황기는 뿌리를 사용하며, 모든 자양강장제에 없어서는 안되는 생약으로 신체의 모든 기능저하·쇠약을 회복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허약체질로 인한 식은 땀, 만성간염, 만성신염, 노인성 부종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 등 모든 혈기 부족 증상에 쓰인다.

황기는 단맛이 있어 인간의 내장을 안에서 따뜻하게 하고 원기의 근원인 신장을 왕성하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황기의 성분에는 자당 점질액 아미노산 글루크론산, 피크닌산, 콜라, 베타인, 엽산, 크마타케닌 등이 들어 있다.

연구에 의하면 강심작용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심장에 효력이 있으며 관상동맥과 신혈관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전신의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왕성하게 하며 피부의 분비공을 닫게 하는 작용이 있어 겨울에 쓰면 감기를 예방하고 반대로 여름에 쓰면 몸의 수분을 지나치게 발산하는 것을 막아 준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한방약으로가 아닌 건강식품으로 널리 애용하여 왔다.

예를 들면 탁백숙에 황기를 넣어 가족 전체가 먹는 방법이 그 좋은 예이다.

중국의 유명한 岳美中 교수(한의학자)는 오랜기간 동안 자신의 의료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한 황기죽을 만들어 신장질환 환자에게 매일 복용시켜 아주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황기죽

재료 : 황기 : 30g
울투 : 30g
계내금 : 9g
팥 : 15g
쌀 : 적당량
금귤 : 꿀에 잰 것

①팥을 물에 불려 놓는다.

②황기를 달여 그 국물을 사용하며 약 6백㎖로 20분쯤 달인 다음 채나 헝겊으로 짜 찌꺼지는 전부 버린다.

③황기 달인 국물을 가열하여 끓으면 여기에 울투와 팥을 넣고 약 30분간 끓인 후 분말로 된 계내금과 쌀을 적당량 넣어 죽을 쓴다.

위의 방법으로 하여 2회에 나눠 먹는데, 죽을 먹은 후 꿀에 재인 귤을 한개 먹도록 한다.